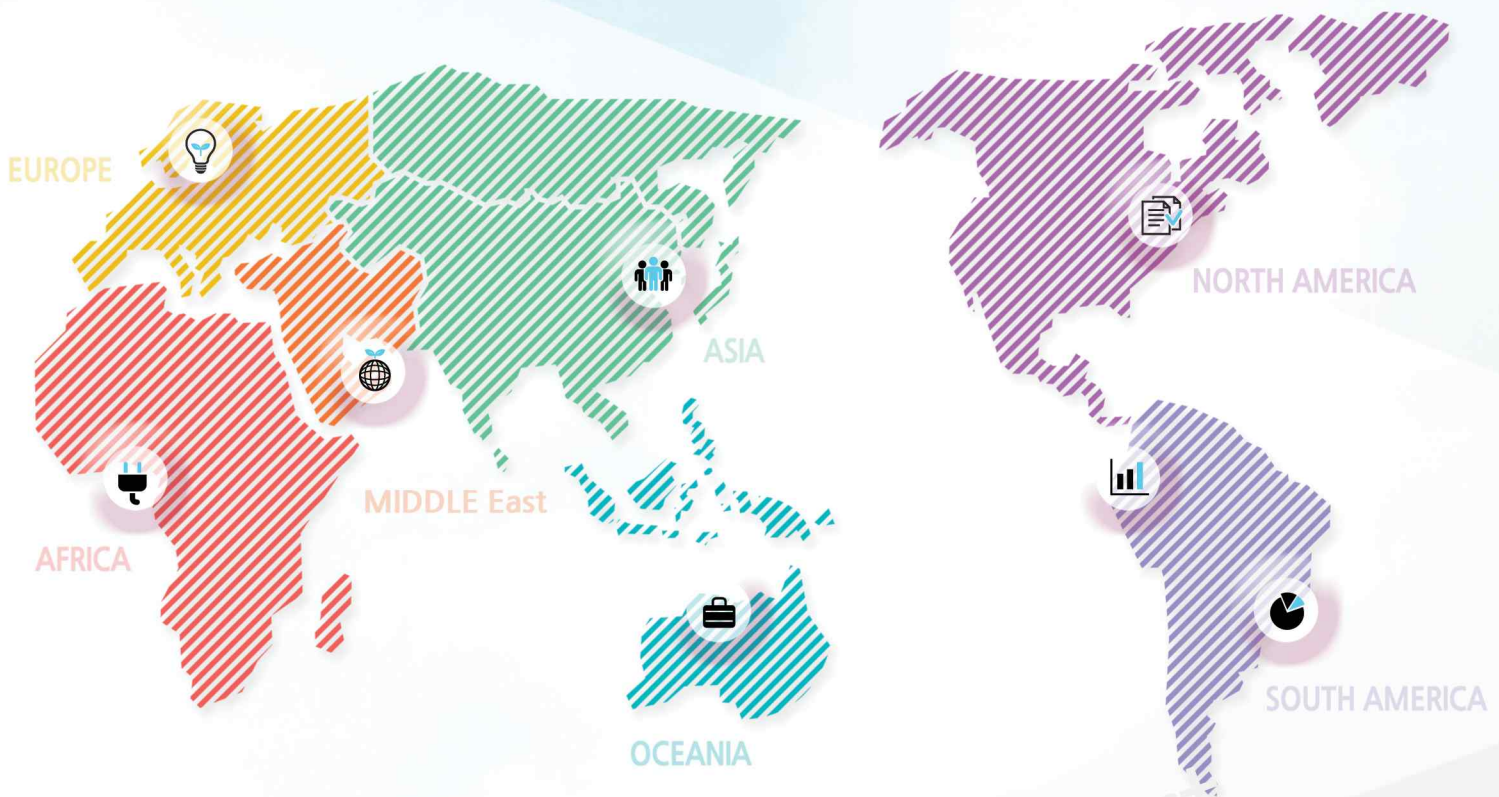




TPP 협상이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CONTENTS

목 차

요 약

I. TPP 최근 동향과 전자산업

- | | |
|---|-------------------|
| 1 | 1. TPP 개요 및 최근 동향 |
| 3 | 2. TPP와 전자산업 |
| 6 | 3. 한국 전자산업 현황 |

II. 주요국 정부·전자업계 반응 및 전략

- | | |
|----|---------|
| 8 | 1. 미국 |
| 16 | 2. 멕시코 |
| 20 | 3. 일본 |
| 25 | 4. 베트남 |
| 32 | 5. 싱가포르 |
| 38 | 6. 중국 |
| 41 | 7. 태국 |

III. 시사점

요 약

□ TPP 최근 동향

- TPP 타결에 주요 열쇠인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승인 및 미·일 협상 완료 후 타결 예상
 - 미국 의회, 무역촉진권한(TPA) 발의(4.16)
 - 상원 재무위원회(4.22), 하원 세입위원회(4.23) TPA 법안 가결
 - 5월 내 법안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양원 모두 “TPA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언급
 - 미·일 협상은 쌀, 자동차 등 쟁점사항이 잔존해 있으나, 양국은 5월 하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TPP 참여국 전자업계 동향

-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강조, TBT 해소 규정 강화 주장
 - 전자제품은 대부분 무관세로 수출입이 이루어져 관세 관련 이슈는 미미
 - 진출국 인건비 상승, 지적권 침해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주요 전자 기업들이 미국으로 U턴하고 있으며, 지적권 보호의 중요성 강조
 - 기술규정의 투명성 강화, 불필요한 테스트와 인증 비용 감소를 주장
- (멕시코) 전자업계 TPP 환영, 수출경쟁력 향상될 것으로 전망
 - TPP 체결 시 멕시코를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전자 기업의 對멕시코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전자업계는 TPP 참여를 환영하는 입장
 - 주요 부품 수입대상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부터의 수입 단가가 낮아져 수출경쟁력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일본) TPP로 인한 對미 수출 경쟁력 제고 기대, U턴 하는 일본기업
 - TPP 발효 시, 동남아와 멕시코를 주요 생산기지로 하고 있는 일본 제품의 對미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엔화 약세, 진출국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가 보태져 중국, 태국 등 TPP 미참여국 진출 기업들이 일본으로 U턴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베트남) 산업 구조 고도화 추진, 단순 부품 조립·가공을 넘어선 핵심 부품 및 소재 산업육성 발판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계획
 - 전자뿐만 아니라 섬유 등 많은 해외기업들이 베트남으로의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베트남 정부는 TPP에 긍정적
 - 취약한 베트남의 핵심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법(High Technology Law)을 제정, 첨단기술업종 투자 시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투자국과의 Win-Win 전략을 모색 중
- (싱가포르) TPP로 인한 영향 미미, 소비자 보호등록 제도 대비 필요
 - 세계적인 전자산업 인프라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싱가포르는 이미 자유무역시장으로서 TPP 참여로 인한 영향은 미미
 - 싱가포르 진출 희망 기업은 전자 산업 관련 비관세장벽인 소비자 보호 등록제도(SAFETY Mark)에 대한 숙지 필요

□ TPP 미참여국 전자업계 동향

- (중국) 외투기업 생산기지 이전 움직임, 그러나 큰 피해는 없을 것
 - 중국 진출 주요 외투기업(파나소닉, 소니, 캐논 등)들이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를 이유로 U턴 혹은 베트남 등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 멕시코, 일본, 베트남의 최대 전자제품 수입대상국인데다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여 전자산업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측됨.
- (태국) 전자산업 타격 우려, 태국 정부 TPP 협상에 구체적 관심 표명
 - 아세안 최대 가전제품 생산 국가였으나, 최근 상승하는 생산비용으로 해외 기업들이 U턴 혹은 타국으로의 이전하는 추세여서 TPP 미참여 시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임.
 - 전자업계는 TPP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TPP 협상에 구체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I

TPP 최근 동향과 전자산업

1. TPP 개요 및 최근 동향

□ 개요

-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 참여 중
- TPP 체결 시 국내총생산 합계로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됨.

〈협상 목표 및 원칙〉

협상 목표	-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FTA 체결 -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 달성 - 역내 supply chain 강화를 위한 통일 원산지 규정 등 도입 - IT, 녹색성장, 신기술 등 새로운 통상이슈 대응
협상 원칙	- (일괄타결원칙) 29개 챕터*에 대한 동시 협상 진행 -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노동·환경, 중소기업, 국영기업 이슈 등 - (상품 분야) 예외 없는 관세화, 국별 단일상품양허안, 통일 원산지 규정 도입 추진 - (서비스·투자 분야) negative list 방식으로 국별 단일유보안 작성

〈참여국의 협상 참여 시기〉

년도	국가	국가수
2008년	P4(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협정 발효	4
2008년	미국, TPP 협상 참가의사 표명	5
2008년	P4 +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8개국 참여	8
2010년	말레이시아 참여	9
2012년	캐나다, 멕시코 참여	11
2013년	일본 참여	12
2013년	한국 참여 관심 표명	

□ 최근 동향

○ 미·일 각료회의 (도쿄, 4.19~20)

- 미국과 일본은 4월 19일부터 20일 사이 진행된 미·일 각료회의 목표를 양국 정상회담에서 환영할만한 수준의 의견 접근으로 설정
-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상은 이번 각료회의를 통해 양국의 의견 차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발표
- 주요 쟁점사항인 농산물과 자동차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음.

〈주요 협상 진전 상황〉

품 목	주요 협의 골자	협상 초점
쇠고기	- 일본의 관세(38.5%)를 10년 간 점진적으로 10% 수준까지 인하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돼지고기	- 일본의 현행 최대 482엔/kg 부과하는 관세를 50엔/kg(종량세) 으로 인하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쌀	- 일본 쌀 의무수입물량(현재 연 77만 톤)에 추가 쿼터 요구 - (미국) 특별쿼터 17만 5,000톤 추가 요구 - (일본) 5만 톤이 한계 (농민 반발 우려) - (절충안) TPP 참가 11개국 대상 10만 톤 특별 쿼터 설정	의무수입물량 추가
자동차	- 완성차 및 부품 관세 2.5% - (미국) 장기간(20~30년) 유지 - (일본) 즉시 철폐 - (절충안) 10년 내 철폐	관세(2.5%) 철폐 시점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닛케이비즈니스

○ TPP 수석협상관 회의 (워싱턴, 4.23~26)

- TPP 협상국 12개국은 신약 개발 데이터 보호 기간, 지적재산권, 공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수석협상관 회의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회의 종료
- 미국이 다자간이 아닌 양국 협의 내용을 토대로 각기 다른 관세를 설정함에 따라, 역내 최종 공산품에 대한 관세 부여 등이 향후 문제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¹⁾

1) Inside U.S. Trade

-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회생 법안 승인 절차 진행 중
 - 4월 16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가 초당적 무역 촉진권한(TPA) 회생 법안 발의에 합의
 - 4월 22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TPA 법안 가결
 - 4월 23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TPA 법안 가결
 - 5월 내 상·하원 모두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양원 모두 “TPA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언급
 - 미 의회가 오바마 행정부에게 TPA를 부여할 경우, 미국 의회가 최종 협정문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국들이 신뢰를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어, 협상 타결에 주요 열쇠로 작용할 것
- *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광범한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TPA가 주어질 경우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일정기한 내에 승인 또는 부결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협정 내용의 수정이 금지됨.
- 한국 정부, TPP 협상동향과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TPP 참여에 대비할 계획
 - 한국 정부는 ① TPP 협상 동향, ② TPP 참여국들과 예비양자협의 경과, ③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④ TPP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국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에 대비할 계획
 - * 필요 시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추가 개최 등을 통해 협상 동향 파악 예정

2. TPP와 전자산업

□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과 TPP

- WTO 정보기술협정(ITA)의 발효('97년 7월)로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에 대한 관세는 없거나 낮음.
- TPP 참여국간 대부분의 주요 교역 전자제품도 ITA에 의해 관세장벽이 낮은 상황

〈정보기술협정(ITA)〉

명칭	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개념	-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 및 부품(203개)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협정으로,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 형식으로 채택, 1997년 7월 발효 - WTO 일부 회원국 간의 협정이지만 관세철폐 효과는 최혜국대우(MFN)방식으로, 참여국들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협정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제공
참여국	- 2014년 현재 총 80개국이 ITA에 참여 중이며, 참여국들은 전세계 ITA 품목 교역의 97% 이상 포괄 * 주요 참여국 :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스위스, 중국, 대만 등
추진배경	- IT제품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IT 품목 교역을 활성화하여 IT 산업 발전을 도모
최근동향	- 2012년 이래, IT 분야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협정 대상 품목 범위 확대 검토를 위해 한국을 포함 미국, 일본, 중국, EU, 대만 등 총 54개국 (EU 28개국 포함)이 협상에 참가 중 - (무관세 대상 품목) 참가국별로 무관세화를 희망하는 품목이 달라, 최종 무관세화 품목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주요 쟁점 - (국가별 민감품목 관세철폐기간 연장) 무관세화 대상으로 결정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참가국별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가전품목 기준, TPP 국가 중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국인 미국, 일본으로 수출시 ITA로 인해 무세 또는 낮은 세율의 관세 적용 중이나, 멕시코와 베트남의 對한국 수입 관세율은 높은 수준

〈TPP참여국 주요 가전품목 관세율〉

구분	한국 수출 (한국 → TPP)	한국 수입 (TPP → 한국)
미국	컬러TV(0%), 냉장고(0%), 세탁기(0~1.8%)	컬러TV(0%), 냉장고(0%), 세탁기(0%)
멕시코	컬러TV(15%), 냉장고(0~20%), 세탁기(0~20%)	컬러TV(8%), 냉장고(8%), 세탁기(8%)
일본	컬러TV(0%), 냉장고(0%), 세탁기(0%)	컬러TV(8%), 냉장고(8%), 세탁기(8%)
베트남	컬러TV(0~5%), 냉장고(0~5%), 세탁기(10%)	컬러TV(0%), 냉장고(0%), 세탁기(0%)
호주	컬러TV(0%), 냉장고(0%), 세탁기(0%)	컬러TV(0~2.6%), 냉장고(0%), 세탁기(0%)
말레이시아	컬러TV(0%), 냉장고(0%), 세탁기(0%)	컬러TV(0%), 냉장고(0%), 세탁기(0%)
싱가폴	컬러TV(0%), 냉장고(0%), 세탁기(0%)	컬러TV(0%), 냉장고(0%), 세탁기(0%)
캐나다	컬러TV(0%), 냉장고(0~5%), 세탁기(0%)	컬러TV(0%), 냉장고(0~6.4%), 세탁기(0%)
페루	컬러TV(0%), 냉장고(0~6%), 세탁기(0~6%)	컬러TV(0%), 냉장고(0%), 세탁기(0%)
칠레	컬러TV(0%), 냉장고(0%), 세탁기(0~6%)	컬러TV(0%), 냉장고(0%), 세탁기(0%)
뉴질랜드	컬러TV(0%), 냉장고(5%), 세탁기(5%)	컬러TV(8%), 냉장고(8%), 세탁기(8%)
브루나이	컬러TV(5%), 냉장고(0~5%), 세탁기(0~5%)	컬러TV(0%), 냉장고(0%), 세탁기(0%)

주 : '15년 4월 기준 발효 FTA의 협정관세율 반영

자료원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자산업 관련 주요 원산지 규정 정리〉

불완전생산기준이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품을 생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으로 역내에서 생산품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져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

〈HS code system 예시〉

HS code	부(section) (총 21범주)	류(Chapter) (총 97범주)	호(Heading) (총 1,224범주)	소호(Sub-heading) (총 5,205범주)	품명
85	16	85			전기기기과 그 부분품
8542			8542		전자직접회로
8542.32				8542.32	메모리

〈세번변경기준 : Tariff Shift criterion〉

역내 가공과정에서 사용된 역외산 재료의 세번과 최종 생산품의 세번이 달라야 함, 즉 원재료의 HS code와 최종 생산품의 HS code가 다를 때 그러한 생산과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 HS 2단위 세번변경(CC, Change of Chapter) : 역내의 가공과정으로 인하여 품목분류상 원재료(Input)가 속하는 류(Chapter)와 최종 생산품(Output)에 속하는 류가 다를 경우 생산품의 성질이 실질적으로 변형된 것으로 인정
- HS 4단위 세번변경(CTH, Change of Tariff Heading) : 품목분류상 원재료(Input)가 속하는 호(Heading)와 최종 생산품(Output)이 속하는 호(Heading)가 상이할 경우 동 가공공정에 대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
- HS 6단위 세번변경(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품목분류상 원재료(Input)가 속하는 소호(Sub-heading)와 최종 생산품(Output)이 속하는 소호(Sub-heading)가 상이할 경우 동 가공공정에 대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
- HS 4단위 분할 세번변경(CTHS, Change of Tariff Heading Split) : 품목분류상 원재료(Input)가 속하는 4단위 분할세번이 최종 생산품(Output)이 속하는 분할세번과 상이할 경우 동 가공공정에 대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
- HS 6단위 분할 세번변경(CTSHS, Change of Tariff Sub-Heading Split) : 품목분류상 원재료(Input)가 속하는 6단위 분할세번이 최종 생산품(Output)이 속하는 분할세번과 상이할 경우 동 가공공정에 대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
- * 분할(Split)이란 특혜원산지규정의 목적상 소호(Sub-Heading) 또는 호(Heading)로는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나타낼 수 없을 경우 기존의 소호 또는 호와는 다른 별도의 분류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를 분할(Split) 세번(extra 또는 ex로 표기)이라고 함.

〈부가가치기준 : Regional value content criterion〉

실질적 변형의 판단 기준으로 가공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 *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비 절감효과,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측정 문제, 임금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의 계산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 부가가치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과 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역외부가가치계산법(Import contents method) : 비원산지(역외산)재료비가 최종 생산품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에만 최종 생산품을 원산지 생산품으로 인정하는 방법
- 역내부가가치계산법(Regional value contents method) : 원산지 재료비가 최종생산품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생산품을 원산지 생산품으로 인정하는 방법

자료원 : 조만희, 『원산지규정과 자유무역협정』, 삼일인포마인, 2014

3. 한국 전자산업 현황²⁾

□ 전자제품 수출입 현황

- '14년 한국의 전자제품 총 수출액은 1,382억 달러로 중국, 홍콩, 미국, 베트남 등이 대표적인 수출대상국임. 그 중 중국이 512억 달러(37.0%)로 가장 크고, 홍콩 164억 달러(11.9%), 미국 128억 달러(9.2%)를 차지함.
- '14년 한국의 전자제품 총 수입액은 751억 달러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84억 달러(37.9%), 대만 108억 달러(14.4%), 일본 85억 달러(11.3%)를 차지함.
- 한국의 전자제품 10대 수출대상국 중 TPP 참여국은 미국,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이며, 10대 수입대상국 중 TPP 참여국은 일본,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 각 5개국임.

〈 한국 전자제품 주요 수출입국 현황 〉

(단위 : 천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수출액	증감율 (14/13)	국가명	수입액	증감율 (14/13)
	전세계	138,212,607	2.00	-	75,080,054	3.88
1	중국	51,181,581	6.42	중국	28,444,356	8.23
2	홍콩	16,385,078	-1.22	대만	10,797,054	6.68
3	미국	12,767,612	3.73	일본	8,456,929	-13.62
4	베트남	8,497,552	0.09	미국	6,513,351	4.23
5	일본	5,675,375	-10.06	싱가포르	5,449,508	7.63
6	싱가포르	5,031,234	-17.83	독일	2,752,757	6.96
7	대만	4,734,866	7.41	말레이시아	1,824,211	-3.25
8	필리핀	3,738,710	27.66	베트남	1,410,048	30.40
9	브라질	3,628,038	-3.29	필리핀	1,321,594	-10.26
10	멕시코	2,487,269	-10.76	태국	1,224,724	7.06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HS code 85 기준, 붉은 음영은 TPP참여국)

2) 동 보고서에서 다루어지는 전기전자업종은 HS code 85로 분류되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으로 자동차, 우주선, 의료용기기 등은 불포함

□ TPP 참여국과의 전자제품 교역현황

- '14년 對TPP 참여국 전자제품 수출은 373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7.0%를 차지, 수입은 244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32.5% 수준
 - 對중국 수출이 512억 달러로, 對TPP 참여국으로의 수출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전자산업 교역에서 중국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음.
- '14년 기준 TPP 참여국 중 미국으로의 수출이 128억 달러(34.2%)로 제일 크고, 베트남 85억 달러(22.8%), 일본 57억 달러(15.2%) 순
- TPP 참여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본 85억 달러(34.6%), 미국 65억 달러(26.7%), 싱가포르 54억 달러(22.3%) 순

〈 對TPP 참여국 전자제품 교역 현황 〉

(단위 : 천 달러, %)

국가명	수출			수입		
	2013년	2014년	TPP 참여국 내 비중	2013년	2014년	TPP 참여국 내 비중
미국	12,308,263	12,767,611	34.3	6,248,968	6,513,351	26.7
베트남	8,489,657	8,497,551	22.8	1,081,358	1,410,048	5.8
일본	6,310,350	5,675,374	15.2	9,789,938	8,456,929	34.6
싱가포르	6,122,636	5,031,233	13.5	5,063,118	5,449,508	22.3
멕시코	2,787,024	2,487,269	6.7	399,792	439,690	1.8
말레이시아	1,509,515	1,387,315	3.7	1,885,440	1,824,210	7.5
호주	668,575	534,491	1.4	79,987	76,755	0.3
캐나다	910,486	522,869	1.4	146,323	209,380	0.9
칠레	143,362	177,395	0.5	1,483	515	0.0
페루	140,921	98,828	0.3	207	283	0.0
뉴질랜드	64,628	71,653	0.2	33,377	36,186	0.1
브루나이	15,072	1,569	0.0	3,199	12,632	0.1
소계(12개국)	39,470,489	37,253,158	100.0	24,733,190	24,429,487	100.0
전세계	135,497,123	138,212,607	-	72,273,717	75,080,054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S code 85 기준, '14년 수출액 순 정렬)

II

주요국 정부·전자업계 반응 및 전략

1

미국

□ 전자산업 동향 및 특성

○ 전자제품 교역 현황

- (수출) '14년 미국의 전자제품 총 수출액은 1,719억 달러,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 홍콩 등이 있음. 그 중 멕시코가 384억 달러(22.3%)로 가장 크고, 캐나다 272억 달러(15.8%), 중국 120억 달러(7.0%)를 차지함. 한국으로의 수출은 59억 달러(3.5%)를 차지
- (수입) '14년 미국의 전제품 총 수입액은 3,150억 달러로 중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이 주요 수입대상국임. 그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270억 달러(40.3%)로 가장 크며, 멕시코 582억 달러(18.5%), 말레이시아 180억 달러(5.7%) 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55억 달러(4.9%)를 차지

〈 미국 전자제품 주요 수출입국 현황 〉

(단위 : 천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수출액	비중	국가명	수입액	비중
	총계	171,966,197	-	-	314,972,629	-
1	멕시코	38,355,068	22.3	중국	127,085,747	40.3
2	캐나다	27,233,513	15.8	멕시코	58,218,517	18.5
3	중국	12,046,820	7.0	말레이시아	17,959,184	5.7
4	홍콩	9,698,169	5.6	일본	17,288,327	5.5
5	말레이시아	6,174,136	3.6	한국	15,483,983	4.9
6	한국	5,935,458	3.5	대만	14,758,684	4.7
7	일본	5,176,686	3.0	독일	8,310,547	2.6
8	독일	4,592,277	2.7	캐나다	7,910,140	2.5
9	싱가포르	4,479,621	2.6	태국	6,790,178	2.2
10	브라질	4,389,181	2.6	코스타리카	5,743,112	1.8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HS code 85 기준, 붉은 음영은 TPP참여국)

○ 미국 반도체 산업 동향

-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핵심 산업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은 인텔(Intel),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 등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팹리스 반도체 기업*, 외국계 반도체 기업, 유관기관 등으로 나뉨.
- * 팹리스 반도체 기업(fabless semiconductor company) : 반도체 칩을 구현하는 하드웨어 소자의 설계와 판매를 전문화한 회사로 자체 제조 설비를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을 칭함.
-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수가 '13년 약 10억 665만 개에서 '15년 약 10억 7,094만 개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수〉

(단위 : 천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자동차	180,341	191,960	213,741
통신장비	259,254	242,506	229,591
소비자 전자제품	100,969	109,835	132,123
데이터 처리장치	466,084	481,055	495,489
산업용 전자	1	1	1
군수/토목/항공	1	1	1
전체	1,006,651	1,025,358	1,070,946

자료원 : Gartner

- 미 반도체 수입시장 규모는 '14년 전년 대비 6.0% 성장하였으며, 이는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른 미국 내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미국 메모리 반도체 수입시장규모 및 성장률〉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시장규모	증가율	시장규모	증가율	시장규모	증가율
시장규모 및 성장률	40,234,807	6.0	41,443,122	3.0	43,962,341	6.1

자료원 : U.S. Census Bureau

○ 주요 전자 기업 현황

- 미국 소비자 가전 시장의 시장 점유율 상위 기업은 애플(Apple Inc.), 삼성(Samsung America Inc.), LG전자(LG Electronics USA), 아마존닷컴(Amazon.com Inc.), 소니(Sony Corp of America), 휴렛 팩커드(Hewlett-Packard) 등
- 주요 전자 기업인 휴렛 팩커드(Hewlett-Packard), 애플(Apple Inc.), 델(Dell) 등의 본사는 미국, 대부분의 제조 공장은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 위치해 있음. (일부는 최근 미국으로 U턴)
-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에서 전자제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인텔(Intel),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orp.), 삼성(Samsung America Inc.) 등은 내수기업을 겨냥한 현지 생산체제 정비 중

〈미국 소비자 가전 주요기업 시장 점유율〉

순위	기업명	브랜드	시장 점유율	본사위치
1	Apple Inc	iphone, iPad, iPod, Mac Book	21.9%	미국
2	Samsung America Inc	Samsung	13.3%	한국
3	LG Electronics USA	LG	6.7%	한국
4	Amazon.com Inc	Kindle Fire, Kindle	5.3%	미국
5	Sony Corp of America	Sony	4.5%	일본
6	Hewlett-Packard	HP	3.7%	미국

자료원 : Euromonitor, Consumer Electronics in the U.S.(시장 점유율 2013년 기준)

○ 주요 기업 현황 *시장점유율 순

- ❶ 애플(Apple Inc.) : 순매출의 38%가 미국, 62%가 해외에서 발생. 생산은 대부분 아시아에 위치한 아웃소싱 파트너로부터 수입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아일랜드에서 최종 조립. 상당수의 제품이 미국, 아시아, 유럽에서 단독 입찰된 아웃소싱 파트너에 의해 공급 또는 제조되고 있음.
- ❷ 삼성(Samsung America Inc.) : 뉴저지주 릿지필드 파크에 미국법인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가전제품 생산의 대부분이 멕시코에서 이루어짐.
- ❸ LG전자(LG Electronics USA) :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리프에 미국법인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TV, 냉장고, 주방가전 등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가전제품 생산의 대부분이 멕시코에서 이루어짐.

- ④ 아마존닷컴(Amazon.com Inc.) : 아마존 닷컴은 E-Book 장비와 스트리밍 TV 서비스 장비 판매에 힘입어 미국 소비자 가전 시장 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웃소싱 파트너는 대만에 위치해 있음.
- ⑤ 소니(Sony Corp. of America) : 뉴욕주 뉴욕시에 미국법인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미국 소비자 가전 시장점유율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⑥ 휴렛 팩커드(Hewlett-Packard) : 순매출의 35%가 미국에서, 65%가 해외에서 발생. 생산은 주로 필리핀, 인도 등에 분포한 다수의 아웃소싱 제조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일부 제품은 벤더로부터 부속품과 하위부품을 납품 받아 직접 완제품을 생산하기도 함.

□ 미국으로 U턴하는 전자 기업³⁾

-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인도 등에서 ‘U턴’하는 미국 기업 증가
 -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은 중국 인건비 상승에 따라 중국 내 에너지 절약형 온수기 생산시설을 미국 켄터키주로 이전(2010년)
 - 냉각기 제조업체인 콜먼(Coleman company)은 중국 내 제조원가 및 운송료 상승에 따라 중국 내 생산시설을 미국 캔사스주로 이전(2011년)
 - 헤어드라이어 제조업체 파루크(Farouk system)는 상표권 도용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중국 내 생산시설을 미국 휴스턴으로 이전(2010년)
 - * 파루크사는 지재권 침해에 따른 피해액이 최대 1.2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
- 전자 기업(제조업) 복귀 이유
 - (신흥국의 저비용 효과 감소)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임금이 상승하는 반면 미국의 임금은 정체해 물류비용을 감안했을 때 생산비용이 비슷해 신흥국의 저비용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공장 해외 이전, 아웃소싱은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현장이 아이디어와 혁신의 원천임.

3)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한겨레신문), 미국제조업연합체(MFG) 설문조사 및 KOTRA 뉴욕 무역관 정리 자료

- * 전자제품, 반도체 등 하이테크 분야 제조업체들의 경우 미국 내 우수인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위안화 가치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유리하다고 분석

□ TPP 추진 관련 미국 정부의 입장

- 미 정부 기본 입장 및 대응 계획
 - 미 정부는 TPP로 미국 내 직업 창출 및 'Made in USA' 제품 수출을 기대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비디오, 전자책 등과 같은 디지털 제품에 관한 관세 철폐 요구
 - 교역국 정부 보조금에 따른 수출 가격 부당성 철폐 주장
 - 다국 간 인터넷 정보 교환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기준 강화
- TPP 협정을 통한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규정 강화
 - 투명성 강화, 불필요한 테스트와 인증 비용 감소, 기준마련의 개방성 확대 추구
 - IT 기술 등 주요 부문에서 관련 제품의 교역과 관련한 규제 문제에 상식적인 접근 주장
-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행을 TPP 협상의 초석으로 삼고자 하며 모든 협약국들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혁신 촉진의 가치를 인지해야 함.
 - TPP 협상을 통해 정보의 흐름을 막지 않고 개인 정보를 보호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TPP 추진 관련 전자업계 반응

-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CEA)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강조
 - TPP 협정은 지적재산권을 보호 할 뿐 아니라 해외시장이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더욱 개방되는 기회를 가져 올 것
 - TPP 협상에서 저작권의 예외와 한계에 대해 규정하여 정보 생산과 공유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

- (CEA 등 40개 미국 및 국제 산업 협회⁴⁾), TPP 협정에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경 없는 데이터 흐름(cross-border data flow)’ 조항을 요구
 - 데이터의 국경 없는 흐름을 허용하고 데이터를 특정 지역에 국한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하고 이행 가능한 의무 조항 필요
 - 의무 조항이 현재 국제무역 법률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한계와 예외 규정 적용
-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 암호가 사용된 제품의 상업적 거래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
 - 정보통신기술 제품은 암호화를 통해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고 보안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해야 함.
 - 그러나 정부의 안보정책이 암호가 사용된 제품의 상업적 거래에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
 - 암호화된 제품의 상업적 거래에 규제와 제한이 없도록 강력한 암호 언어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 마련 필요
 - 또한, 영업비밀의 보호, 모조품 확산 방지 강화 및 보호주의나 차별적 요소 없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제품에 대한 지원 방법 논의 요구

□ 주요 기업의 전략

< IBM >

- ▶ 국제사무기기회사로 미국의 다국적 기술 및 컨설팅 회사
- ▶ 1911년 미국에서 창립되었으며,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판매 및 기업 컨설팅과 서비스가 주요 사업임. 우량 주식 중 뛰어난 최우량주로 ‘빅 블루’라고도 불림

- TPP 협상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을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
- TPP 협상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
 - 차별적 기준을 포함한 IT 제품에 대한 기술 장벽 제거
 - 규제의 투명성 향상

4) 전체 목록은 웹페이지 참고

: <http://www.techcouncil.org/clientuploads/directory/Letters/15%20October%20Multi-association%20TPP%20Letter.pdf>

- 무역 및 통관 절차의 간소화
-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 정부 조달 시장 참여 기회 확대
-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차별과 무관세 혜택 등 전자상거래 지원

< 휴렛 팩커드(Hewlett-Packard) >

- ▶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세계 1호 벤처기업
- ▶ 컴퓨터를 비롯한 주변기기, 전자측정 및 계측장비와 시스템, 네트워크, 전자의료장비 등 약 2만 5,000여 종에 달하는 첨단정보통신 제품을 생산

- TPP 협상은 국경 없는 데이터 흐름, 지역별 인프라 요구사항 금지, 개인정보 보호, 암호화 기준과 같은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매우 중요한 첨단 기술 이슈를 언급하고 있음.
- 휴렛 팩커드(Hewlett-Packard)는 TPP 등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추구
- 국경을 뛰어넘는 데이터 흐름의 허용, 지역의 인프라 요구사항 제한을 통해 IT 서비스 시장의 개방 요구
- 무역 협정에서 강력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기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규제의 투명성 제고, 글로벌 공급망을 용이하게 하는 통상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

<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Co. Ltd.), LG전자(LG Electronics Inc.) >

- 미국 소비자 가전 시장 점유율 2, 3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주요 생산시설이 미국 내 혹은 TPP 참여국인 멕시코에 위치하고 있어 TPP 발효에 따른 아웃소싱 전략 변화 움직임은 없음.
- 멕시코의 세제혜택과 NAFTA 활용을 통한 절세 및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설치하여 TV, 냉장고, 주방가전 제품을 생산 중

□ 우리 전자 기업의 TPP 활용 전략

○ 우리 전자 기업의 TPP 활용 전략

- 전자제품 중 한국의 주요 對미 수출 품목은 대부분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므로 TPP협정으로 인한 관세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 가전제품 기업들은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저가 모방품에 시장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
- 미 전자제품 시장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고,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한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좋은 인식을 활용하고, 현지 사정과 업계 동향을 파악한 시장 진출 전략이 필요함.

2 멕시코

□ 전자산업 동향 및 특성

○ 전자산업 일반 현황

- 멕시코에는 자국브랜드의 글로벌 전자 기업이 아직 전무한 상태
- 멕시코업체는 전자산업에서 제품의 포장·물류 등에 관여하고 있음
- 전자제품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의 수입관세는 전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분 면제되거나 저율 관세가 부과됨.

〈멕시코 관세환급제도 요약〉

2000년까지 마길라도라 및 PITEX 제도에 의거, 모든 수출용 원부자재 및 설비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해왔음. NAFTA 발효 이후 제3국가의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면제 혜택이 중단되면서 모든 수출용 원부자재 및 기계류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멕시코는 대체 방안으로서 PROSEC(산업진흥프로그램) 제도를 도입

① 마길라도라 산업

- 마길라도라 산업이란 외국산 원부자재, 기계장비 등을 무관세로 수입하여 조립 가공한 후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재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집약형 산업을 뜻하며, 동 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처음에는 모든 생산품을 100% 수출해야 했으나, 1994년까지 전년도 수출의 55%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내시장에 판매할 수 있었고, 2001년 해당 제한이 사라짐.

② PITEX (수출용자재 잠정수입 지원제도)

- 해외수출이 50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출비중이 총매출의 10% 이상인 업체들에게 수출제조용 자재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함.

③ IMMEX (제조·보세임가공·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 ① + ②)

-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을 임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시기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해주는 프로그램
- IMMEX는 수출 마길라(Maquila, 보세임가공) 산업진흥을 위한 법령과 수출 상품 생산을 위한 임시수입 프로그램(PITEX) 법령을 통합한 제도로써 2006년 11월 13일 발효됨.
- 멕시코 정부는 실제로 내용이 거의 같은 마길라 프로그램과 PITEX를 하나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체들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IMMEX 통합법령을 발효함.

④ PROSEC(산업진흥프로그램)

- NAFTA 발효 이후, NAFTA 제3조에 의한 마길라도라(가공수출업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i) 외국기업이든 멕시코 국내기업이든 ii) 완제품이 수출용이든 내수용이든 여부에 상관없이 생산에 사용된 수입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
- 한국과 같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기계 및 장비, 부품, 소재 등을 조달하여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을 NAFTA나 EU, EFTA 회원국가로 수출하거나 멕시코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PROSEC은 IMMEX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활용 가능

○ 외투기업 진출 현황

- 주요 진출 기업은 삼성, LG, 미쯔비시(Mitsubishi), 파나소닉(Panasonic), 휴렛 팩커드(Hewlett-Packard) 등이 있음.
- 일부 진출기업은 제조공장만 설립한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센터 및 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멕시코인을 고용하고 있음.

국가	진출기업	주요제품
한국	삼성, LG, 동부대우전자	휴대전화, 평판 텔레비전, 카 스테레오 등
일본	교세라(Kyocera), 소니(Sony), JVC, 미쯔비시(Mitsubishi), 샤프(Sharp), 파나소닉(Panasonic), 산요(Sanyo)	태양광 제품, 휴대전화, 스캐너, 복사기, 프린터, TV, 사진기, 캠코더, 기타 가전, 오디오, 녹음기 등
미국	휴렛 팩커드(Hewlett-Packard)	컴퓨터

○ 제품별 주요 부품 수입

〈제품별 주요 부품 수입대상국〉

제품	주요제조사	부품	수입대상국
평판 텔레비전	LG 등	반도체	코스타리카,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모니터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축전기	중국, 한국, 대만, 미국
카 스테레오	LG 등	헤드 유닛 (Head Unit)	중국, 일본, 태국, 미국, 한국
		스피커	중국, 캐나다, 미국, 말레이시아, 한국
		축전기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말레이시아
휴대전화	삼성 등	인쇄회로기판	중국, 미국, 한국, 대만, 베트남, 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안테나	
		마이크, 스피커	
컴퓨터	휴렛 팩커드 (Hewlett-Packard)	전원장치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태국 필리핀
		메인보드	
		기억 장치	

○ 전자제품 교역 현황

- (수출) '14년 멕시코의 전자제품 총 수출액은 800억 달러,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등이 있음. 그 중 미국으로의 수출이 697억(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18억(2.3%), 콜롬비아 9억(1.2%)를 차지함.

- (수입) '14년 미국의 전자제품 총 수입액은 851억 달러로 중국, 미국, 한국 등이 주요 수입대상국임. 그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82억 달러(33.1%)로 가장 크며, 미국 224억 달러(26.3%), 한국 61억 달러(7.2%) 순

〈 멕시코 전자제품 주요 수출입국 현황 〉

(단위 : 천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수출액	비중	국가명	수입액	비중
총계		80,023,663	-	-	85,125,851	-
1	미국	69,658,690	87.0	중국	28,171,822	33.1
2	캐나다	1,829,181	2.3	미국	22,423,449	26.3
3	콜롬비아	927,230	1.2	한국	6,124,542	7.2
4	프랑스	602,620	0.8	말레이시아	5,181,043	6.1
5	칠레	548,696	0.7	일본	4,563,436	5.4
6	브라질	488,427	0.6	대만	3,383,241	4.0
7	페루	473,521	0.6	코스타리카	2,207,466	2.6
8	네덜란드	469,388	0.6	독일	2,142,168	2.5
9	독일	448,597	0.6	태국	1,409,734	1.7
10	중국	443,125	0.6	필리핀	1,211,262	1.4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HS code 85 기준, 붉은 음영은 TPP참여국)

□ TPP 추진 관련 멕시코 정부의 입장

○ 정부 기본 입장 및 대응 계획

- 멕시코의 경우 농업, 섬유 산업분야에서는 TPP 타결시 낮아질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여 반대하는 입장임.
- 경제부 장관에 의하면 이미 성숙한 산업의 경우 TPP 타결에 따른 시장 확대에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
- 이미 성숙단계에 있는 전자산업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됨.

□ TPP 추진 관련 전자업계 반응

- CANETI(전자,통신,IT 협회)의 기본 입장
 - 기본적으로 TPP의 타결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페루 등 TPP에 가입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주요 부품수입 대상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부터의 수입 단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우리 전자 기업의 TPP 활용 전략

- 우리 전자 기업의 멕시코 진출 현황
 - 삼성과 LG는 북미, 중남미 및 멕시코 내수 등을 타겟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 시장을 매우 중요한 거점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경쟁국인 일본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반면 한국은 멕시코와 FTA 미체결 상황으로 삼성, LG는 멕시코에 생산법인을 지어 주요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우리 전자 기업의 TPP 활용 전략
 - 이미 멕시코로의 투자를 완료한 상태로 對미 수출 시 NAFTA를 활용하여 관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TPP 가입 여부나 TPP 자체의 타결 여부와 관련하여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멕시코를 투자거점으로 활용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 증가로 경쟁 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부품 소싱처 다변화 전략 및 제3국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할 것

3 일본

□ 전자산업 동향 및 특성

○ 전자산업 일반 현황

- (국내 생산 증가) 일부 전기전자 기업들이 해외 생산의 일부를 국내로 다시 이동하는 움직임이 있음.
- 파나소닉은 세탁기, 냉장고 등 백색 가전의 해외 생산기지 일부를 국내로 전환할 것을 검토 중
- 다이킨 공업은 가정용 에어컨의 중국 생산 일부를 국내 생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샤프와 캐논 등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해외 아웃소싱을 줄이고 자국 생산을 증가시키는 추세는 '12년 이후 엔화 약세와 진출국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생산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임.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한 수출과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 전자제품 교역 현황

- (수출) 일본 전자제품의 '14년 수출 규모는 1,040억 달러,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중국, 미국, 홍콩, 대만, 한국 등이 있음. 그 중 중국으로의 수출이 257억 달러(24.7%)로 가장 크고, 미국 153억 달러(14.7%), 홍콩 116억 달러(11.2%)임. 한국으로의 수출은 약 70억 달러로 6.7%를 차지
- (수입) 일본 전자제품의 '14년 수입 규모는 990억 달러,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대만, 미국, 한국, 말레이시아임. 그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505억 달러(51.0%)로 가장 크며, 대만 114억(11.5%), 미국 677억 달러(6.8%) 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665억 달러로 6.7%를 차지

〈 일본 전자제품 주요 수출입국 현황 〉

(단위 : 천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수출액	비중	국가명	수입액	비중
	총계	104,073,839	-	-	99,019,242	-
1	중국	25,719,454	24.7	중국	50,523,742	51.0
2	미국	15,253,857	14.7	대만	11,351,183	11.5
3	홍콩	11,645,793	11.2	미국	6,768,838	6.8
4	대만	7,585,828	7.3	한국	6,654,924	6.7
5	한국	6,960,331	6.7	말레이시아	4,632,792	4.7
6	태국	4,752,484	4.6	태국	3,694,854	3.7
7	독일	4,643,882	4.5	필리핀	3,298,570	3.3
8	싱가포르	4,100,536	3.9	베트남	2,506,243	2.5
9	말레이시아	3,167,358	3.0	독일	1,834,969	1.9
10	필리핀	2,962,488	2.8	인도네시아	1,476,424	1.5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HS code 85 기준, 붉은 음영은 TPP참여국)

□ TPP 추진 관련 일본 정부·전자업계 반응

○ 정부 기본 입장 및 대응 계획

- 현재 일본이 TPP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분야는 쌀, 돼지고기 등 주요 농산물 5개 품목으로, 전자제품 관련 분야에 특별한 쟁점은 없음.

○ 전자업계 기본 입장 및 주요 요구사항

- TPP 협상 참가 적극 환영, 조기 타결 희망
- 일본 기업이 TPP 협상을 활용하기 쉽도록,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원산지 규정 제도의 수립 희망
- 일본은 현재 전기전자 품목의 수입 관세가 거의 없으며, TPP 체결로 다른 참가국의 전자제품 및 부품 관세가 철폐되기를 기대
- (지적재산권) 모방품 대책 등의 분야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등 기술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규칙 작성 희망

□ 주요 기업의 전략

< 파나소닉(Panasonic) >

- ▶ 1935년 설립, 매출 7조 7,365억엔, 순이익 1,204억엔, 총 종업원 수 26만 911명으로 일본 2위 종합 전기 제조업체 ('13년)
- ▶ 주로 개인 소비자용 제품·서비스에 중심이었으나, 2013년부터 기업 대상 제품 및 서비스(BtoB)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전개. 현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가전의 비중은 24%이며, 2018년도 결산까지 20%까지 낮춘다는 방침
- ▶ 43개의 사업부가 있으며, 관련 자회사 등은 총 482개사
- ▶ Patent Result가 발표하는 전 세계 '특허 자산규모 순위' 5년 연속 1위 ('13년)

○ TPP 발효 후 해외 아웃소싱 전략 변화

- 90년대 후반부터 파나소닉은 아세안 각 지역의 생산공장, 이른바 '미니 마츠시타'의 재편·통합을 통해 백색가전의 생산거점을 태국으로 집중
- 마츠시타 마사유키 부회장은 TPP보다 한중일 FTA와 EU-일본과의 EPA 체결 쪽이 이익이 크다는 입장
- 중국과 북미에서의 매출 감소로 인해 중국과 멕시코 공장을 철수 예정이며, 이에 따라 파나소닉 총 생산량의 10%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 TV/panel 등은 PDP부문을 철회하고 LCD에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에어컨과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생산기지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임.

< 히타치 제작소(日立製作所) >

- ▶ 1920년 설립, 매출 9조 6,162억엔, 순이익 2,649억엔, 총 종업원 수 32만 725명으로 일본 종합 전기 제조업체 중 최대 규모 ('13년)
- ▶ 전 세계 생산·판매 거점을 보유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매출의 45%가 해외에서 발생
- ▶ 연결 자회사 947개, 지분법 적용회사 231개사 등 총 1,178개사로 히타치 그룹 형성

○ TPP 발효 후 해외 아웃소싱 전략 변화

- TPP를 별도로 고려한 전략의 변화는 없으나, '14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사적인 글로벌 벨류 체인 경쟁력 강화 방침을 표명
- (조달 엔지니어링) 제품의 구상 및 개발 단계부터 목표 제조 원가를 설정,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가기획’, 히타치 그룹 규모의 강점을 활용한 ‘집약구매’ 등을 확대할 계획

- 이런 과정을 통해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사내 설계·제조부문 등과 긴밀한 관계 구축 강화
- 조달 관점에서부터 각종 제안 및 협력을 통한 벨류체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이른바 ‘조달 엔지니어링’ 진용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

〈 소니(Sony) 〉

- ▶ 1946년 설립, 매출 7조 7,767억엔, 순이익 △1,283억엔, 총 종업원 수 14만 6,300명('13년), 주로 TV, 디지털 이미징, 오디오 및 비디오 반도체 구성 요소 제품을 개발 및 판매
- ▶ 1,337개의 자회사와 115개 계열사를 통해 휴대폰, 영화, 음악, 게임, 금융, 네트워크 서비스 등 관련 사업 전개중

○ TPP 발효 후 해외 아웃소싱 전략 변화

- 소니는 아세안 지역에 TV 제조를 중심으로 해외 생산기지를 전개했으나, 2010년 아세안 역내 관세가 철폐되자 역내 생산 거점을 말레이시아로 집중
- 기존 본사 조달본부가 담당해오던 부품조달 전략 수립을 아시아 4개 거점으로 이전, 신규 조달처 개척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구상
- (Sony사 CEO Kazu Hirai) 플레이스테이션4와 센서카메라에 사업을 집중하는 것으로 시장 전략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매출의 25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소니(Sony)사는 애플(Apple), 삼성(Samsung), 중국의 저렴한 스마트폰 등과의 강도 높은 경쟁으로 인해 스마트폰 부분에서 철수를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럽과 중국의 노동자가 1,000명가량 해고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TV 사업 부문도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보임.

- 그 외 캐논(Canon), 다이킨(Daikin) 등은 일본 내 생산량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태국, 중국 등의 제조공장을 철수시키고 일본으로 이동하였음.

□ 우리 전자 기업의 TPP 활용 전략

○ 우리 전자 기업의 TPP 활용 전략

- 과거 일본 전자 기업들은 장기 경기 불황과 엔고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비용 절감과 급격한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방책의 하나로써 해외 생산 확대 및 해외 소재부품의 조달을 늘려왔음.
- (동남아 시프트) 조달에 관해 각 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동남아로의 생산기지 이전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부품의 경우 아시아 현지 기업이 급속히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일본 중심이었던 조달을 현지 조달로 전환, 비용 절감으로 연결
- (조달 일원화) 일본 대기업의 경우 사업 부문별로 분산되어 있는 조달 기능 중 범용품의 조달을 일원화하는 동향이 강해지고 있음.
- 최근 중국, 태국 등에 진출한 전자 기업들이 엔화 약세, 진출국 인건비 상승 등 경영요건 악화로 생산성이 좋은 자국으로 U턴하는 추세
- (우리기업 전략) TPP 등을 계기로 해외 생산을 개편하는 일본기업 대상 납품 기회를 늘려 현지에서의 거래 실적이 축적된다면 역으로 일본의 본사와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4 베트남

□ 전자산업 동향 및 특성

○ 전자산업 일반 현황

- 베트남 전자산업은 '94년부터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통하여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조기지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현지 내수시장으로서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500여개의 베트남 국영기업, 사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는 전체의 25%에 불과하지만, 전자분야 베트남 시장점유율의 80%, 수출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자국 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자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베트남 내 법인설립 시, 15년간 법인세율을 10%로 적용하는 등 하이테크 분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베트남의 법인세율 적용〉

법인세율	대 상	우대세율적용기간 (우대기간종료후 22% 적용)	완전 면제기간	50% 감면기간
22% 표준세율	우대세율 미적용 법인	전 사업기간	제조법인에 대해 소득발생연도부터 2년	면제기간종료 후 2년 (신설 또는 지방이전 하는 기존법인)
20%	일반우대지역	전 사업기간	소득발생연도부터 2년	면제기간종료 후 6년 (신설 또는 지방이전 하는 기존법인)
10%	High Tech 분야, 특별우대지역,경제특구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	면제기간종료 후 9년

자료원: 베트남 투자법(Law on Investment)

- 수출주도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는 후지쯔(Fujitsu), 캐논(Canon), 인텔(Intel), 폭스콘(Foxconn) 등이 있으며, 수출·내수형 기업으로는 삼성(Samsung), 엘지(LG), 파나소닉(Panasonic), 도시바(Toshiba), JVC 등의 한국 및 일본계 기업들이 진출해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가장 규모가 큰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닌성, 타이응웬성, 호치민시 등 총 112억 달러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음. '14년에는 베트남 북부 타이응웬 지역에 30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에 투자하였음.
- * 베트남 경제 연구소 소장은 베트남 현지 기업들이 단순 부품 조립·가공뿐 아니라 삼성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베트남 전자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
- 파나소닉(Panasonic)은 빈즈엉 지역에 40억 달러 투자, 인텔(Intel)은 호치민 지역에 10억 달러를 투자, 프린터, 복사기 전문제조업체인 후지 제록스(Fuji Xerox)는 0.9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함.

〈 주요 외국투자기업의 전자산업 분야 투자진출 타임라인 〉

시기	내용
1990년대 중반	- 호치민 지역 중심으로 가전기기 제품의 외국인 투자가 시작되었음
2000년대 초반	- 베트남 남부지역 뿐 아니라 북부지역에 가전기기 제품·부품 투자진행
2006~2007년	- Canon, Fujitsu, Jabil, Foxconn, Compal 등 글로벌 기업들이 1억달러 규모의 조립 생산라인을 투자함.
2008년	- 삼성, Canon, Bosch 등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였음. 특히 삼성은 25억달러 규모의 휴대폰 부품 조립·설비 공장을 베트남 북부 박닌성 옌퐁공단에 설립함.
2010년 -2012년	- Intel사의 1억달러 규모의 조립 및 시험설비 공장의 투자 뿐 아니라 Nokia, Panasonic 및 Fuji Xerox사도 투자를 단행하였음.
2013년	- 삼성, 베트남 북부 타이응웬 지역에 30억달러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투자 승인을 받음 - LG전자, 베트남 북부 항구도시 하이퐁에 15억달러 규모의 생산기지(TV, 휴대폰,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 등)를 투자기로 결정
2014년	- 삼성은 베트남 북부 타이응웬 지역에서 시작하는 12.3억 달러 규모의 전자기계 프로젝트, 10억달러 규모의 박닌성 지역의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진행

○ 전자제품 교역 현황

- (수출) 베트남 전자제품의 '14년 수출 규모는 224억 달러,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일본, 중국, UAE, 미국, 독일 등이 있음. 최대 수출대상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24억 달러로 10.8%를 차지하며, 중국은 20억 달러 8.9%를 차지
- (수입) 베트남 전자제품의 '14년 수입 규모는 2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9.6% 증가한 수치임. 주요 수입대상국으로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이 있으며, 최대 수입대상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7억 달러로 37.8%를 차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3억 달러로 23.3%를 차지함.
- 베트남은 대부분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현지공장에서 조립 후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로 냉장고, 에어컨, 전기밥솥 등 백색 가전류 임.

〈 베트남 전자제품 주요 수출입국 현황 〉

(단위 : 천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수출액	비중	국가명	수입액	비중
	총계	22,395,612	-	-	22,963,264	-
1	일본	2,409,528	10.8	중국	8,677,211	37.8
2	중국	1,990,415	8.9	한국	5,349,061	23.3
3	UAE	1,541,890	6.9	일본	2,545,428	11.1
4	미국	1,384,023	6.2	싱가포르	1,154,209	5.0
5	독일	1,261,913	5.6	미국	1,107,836	4.8
6	말레이시아	1,231,619	5.5	대만	748,325	3.3
7	영국	992,865	4.4	말레이시아	694,986	3.0
8	홍콩	965,395	4.3	태국	517,567	2.3
9	오스트리아	869,313	3.9	아일랜드	479,245	2.1
10	러시아	849,524	3.8	필리핀	406,460	1.8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S code 85, '12년 기준)

□ TPP 추진 관련 베트남 정부의 입장

- (기본입장) TPP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많은 해외기업들이 투자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베트남 정부는 TPP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 (전자산업 영향) 최근 전자산업의 글로벌 벨류 체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 중이며, TPP 참여국인 베트남은 글로벌 기업들의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존의 단순 부품 조립·가공을 넘어서 핵심 소재부품 산업 육성에 발판으로 삼고 있음.
 - 베트남 전자부품산업의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실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 부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전자제품 수출이 늘어날수록 관련 부품 수입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대부분의 베트남 전자부품기업은 영세한 규모로서, 연구개발력 및 기술 동향 정보가 부족하여 수요기업과의 기술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삼성전자의 경우, 동반 진출한 협력업체들로부터 대부분의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임.

- (전문 인력 양성) 베트남 전자산업 분야 전문 인력 부족 심각
 - 베트남 정부가 산업 구조고도화를 목적으로 제정한 첨단 기술 법(High Technology Law)에 따르면,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첨단기술업종으로 인정받아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고용인력 대비 연구개발 인력 비중이 5%이상의 조건 충족이 필요하지만 실제 베트남 전자산업 분야의 숙련 및 전문 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
 - 삼성전자, LG전자 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한국의 효과적인 인적자원 정책과 경험을 전수받아 벤치마킹 모델로 삼을 필요성이 있어 보임.

□ TPP 추진 관련 전자업계 반응

- (전자업계 반응) 베트남 진출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음.
 - 베트남은 고용창출, 우수한 인재 육성, 글로벌 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기술표준 구축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에게 베트남 내수시장을 빼앗긴 많은 현지 영세 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원산지 기준) TPP 원산지 기준을 통한 역내 전자부품 조달 시, 관세인하 등으로 가격·제품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
- (생산성 향상) IAA(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 Industry) 연구소에 따르면 TPP참여국인 베트남은 12.8%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조사됨.

< TPP가 전자산업에 미치는 주요 국가별 영향 >

수혜국	생산성(%)	피해국	생산성(%)
TPP 참여국			
1. 베트남	12.8	1. 페루	-4.2
2. 멕시코	0.9	2. 뉴질랜드	-2.5
3. 캐나다	0.8	3. 싱가포르	-1.4
4. 말레이시아	0.7	4. 칠레	-1.3
TPP 미참여국			
인도네시아	10.8	캄보디아	-6.2
한국	3.4	라오스	-3.5

자료원 : IAA(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 Industry)

□ 주요 기업의 전략

< 베트남로닉스(Viettronics Corporation) >

▶ 가전기기, 정보통신기기 제조사로 1970년 국영기업으로 설립 후 2006년부터 민영화됨.

- 베트남 정부는 전자산업 육성 차원에서 동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 TPP에 대비하여 R&D투자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가치사슬 진입을 통하여 유통·물류·마케팅 전략을 강화 계획

< 마이크로 소프트 모바일(Microsoft Mobile Vietnam) >

▶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와 노키아 베트남(Nokia Vietnam)의 합작 법인
 ▶ 동 기업은 대부분의 부품·소재를 해외에서 소싱하여 베트남 공장에서 조립·제조 후 전 세계 100여개 국에 수출하고 있음.

- 일부 중국의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 TPP를 계기로 베트남을 생산 거점 글로벌 기지로 추진할 계획
- 또한 부품 현지 생산비율을 4년 안에 30~50%까지 올릴 계획이며 고용창출을 대폭 늘려 인재 역량개발에도 힘쓸 예정
- 청년창업 육성사업인 'YouthSpark' 프로그램에 300만 달러의 자금을 베트남에 3년간 투자기로 결정

<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Co. Ltd.) >

▶ 연매출 41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휴대전화 제조기업
 ▶ 베트남으로의 투자 금액은 35억 달러이며, 한국인 70명, 외국인 32,000명의 종업원 고용 중

- 베트남을 수출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전략 가속화
- 휴대폰은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음.
- 지난 '08년 25억 달러를 들여 베트남 북부 박닝성 옌퐁공단에 휴대폰 생산공장을 세운데 이어, '13년에는 타이응웬성에 휴대폰 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30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계획도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15년 4월중 출시에정인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를 베트남에서 생산함.

- 이와 함께 '17년까지 5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사이공 하이테크파크(SHTP)에 TV 중심의 소비자가전 복합단지 건설도 추진 중
-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활용 중
- * 최근 영국공인회계사협회(ICAEW)가 1991년부터 2012년까지 동남아국가연합(ASEAN) 주요 회원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베트남이 184%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태국(85%), 싱가포르(81%), 말레이시아(80%) 등 보다 월등히 높음.

□ 우리 전자 기업의 TPP 활용 전략

○ 우리 전자 기업의 TPP 활용 전략

- (글로벌 아웃소싱의 다변화) 반도체, 센서, 휴대폰 부품 등 전자제품의 일부 부품은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말레이시아 등 TPP 참여국으로부터 아웃소싱을 하는 다변화 전략 필요. TPP 발효 시, 역내 국가 간 관세/비관세 장벽이 완화되어 가격 및 제품 경쟁력 확대 전망
- (양국 간 상생협력 전략) 베트남은 TPP뿐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양국 정부차원의 상생협력 전략을 구성하여 한국 기업은 전략적인 투자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및 토지세·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베트남 측은 고용창출, 인재육성, 기술이전 및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 전용공단) 베트남에 투자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현지 안착을 위해 베트남에 전용공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음. 일본기업 전용공단은 이미 10여 곳 조성되어 있으나, 한국기업 전용공단은 아직 없는 실정임.
- 전용공단의 이점으로는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상의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약되고, 인프라 조성과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함. 수요측면에서 베트남 정부는 소재부품산업 육성 의지를 가지고 있고, 공급측면에서는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소재부품 업종이므로 양국 간 전용공단 설립에 대한 협력 여건은 충분함.

- (공적개발원조) 對베트남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로 베트남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면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진출 기회로 활용 필요. 베트남의 사회간접자본(SOC)은 아직 열악하며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함.
- 일본의 경우, 對베트남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일본기업들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면서 베트남 투자 진출이 증가하였고, 이는 일본의 對베트남 수출 증가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 (한-베 FTA활용 전략) 한-베트남 FTA는 '12년 9월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14년 12월 타결
- 우리기업들은 동 FTA를 활용한 對베트남 진출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에는 한국의 섬유·의류 및 전기전자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핵심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음. 특히 삼성전자는 베트남 수출 1위 품목인 휴대 전화·부품의 수출에 있어 98%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함.
- 섬유, 자동차 부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을 통하여 베트남을 거점으로 한 동남아 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핀 포인트 전략 I) 베트남에 진출한 글로벌 전자 기업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 간 다양하고 안정적인 거래선 발굴이 필요
- 'Outsourcing Fair'(가칭) 핀 포인트 구매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베트남 진출 주요 글로벌 기업과의 아웃소싱·R&D·기술협력의 상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진출기업들의 기술 및 제품경쟁력 제고 가능
- (핀 포인트 전략 II) 베트남의 주요 전자제품 및 부품·소재 제조사를 초청하여 기술이전·아웃소싱 세미나 및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
-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육성을 위하여 현지진출 한국 기업에게 베트남 자국기업 물자를 일정부분 구매하도록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
- 이에 적정가격, 우수품질의 소재부품에 대한 베트남 현지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투자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실질적 해결 및 양국 동반성장 이미지 제고 가능

5 싱가포르

□ 전자산업 동향 및 특성

○ 전자산업 일반 현황

- 고부가 지식집약형 제조 산업을 지향하는 싱가포르에는 반도체, 컴퓨터 주변장치, 데이터 저장, 가전제품 분야 전자산업이 발달되어 있음.
- 싱가포르 전자산업은 76,402명을 고용('13년 기준)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 제조 산출량의 26.8%('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산업 동향

- '14년 기준, 부문별로는 반도체 부문이 성장했으나 데이터 저장 부문과 PC 주변 기기 분야에서 부진, 전년대비 각각 0.1% 감소하여 전체 전자산업의 GDP 증가기여도는 0%를 기록함.
- 이는 PC와 서버 등의 완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부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싱가포르가 스마트폰, 태블릿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산업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전자 산업을 꾸준히 육성하기 위해 R&D와 반도체 분야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전자 기업 진출 동향

- 세계적인 전자 기업들이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역내 중심지이자 제조 역량 기반이 뛰어난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선택해 왔음.
- 싱가포르에는 14개의 웨이퍼 실리콘 제조공장과 20개의 반도체 조립 및 시험기업, 약 40개의 집적회로 설계센터와 세계 3대 웨이퍼공장이 있음.
- 히타치 제작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 글로벌파운드리(Globalfoundries) 등과 같은 세계적인 전자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14년에는 인터폴에서 사이버범죄 데이터 센터를 싱가포르에 세우겠다고 밝히는 등 세계적인 전자산업 인프라국가로 인정받고 있음.

〈주요 기업별 비즈니스 현황〉

기업명	현황
휴렛 팩커드 (Hewlett-Packard)	- 연 매출액 1114억5400만 달러 규모의 정보통신산업의 글로벌 기업 - 1939년 설립, 컴퓨터, 주변기기, 전자측정 및 계측장비와 시스템, 네트워크, 전자의료장비, 통신제품 등 약 2만 5000여 종에 달하는 첨단정보통신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1970년 진출한 이후, 아시아태평양 판매 및 운영 본부와 생산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퀄컴 (Qualcomm)	- 1994년 진출, 국제지역본부와 세운 글로벌 물류허브로 운영되고 있음. - 집적회로(IC) 개발 및 테스트 센터 보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icron Technology)	- 1991년에 진출하여 아시아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2008년 인텔과 협력하여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IM Flash Singapore 설립했고, 2012년 완전 인수함.
파나소닉 (Panasonic)	- 1989년 진출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로 운영, 영업, 물류, 조달 및 R&D 파트로 운영
필립스 (Philips)	- 1951년 진출 후 현재 30,000명 직원 고용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의료 제품(hospital-to home) 지역 본부를 설치했음.
로데 슈바르츠 (Rohde and Schwarz)	- 연 매출액 17억5000만 달러 규모의 RF 계측기 및 전자 통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독일기업 - 1997년 진출, 2002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로 설립, 2011년 유럽지역 외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생산 공장이 설립되었음 - 2014년에는 5천8백만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한 CBP 지역의 Das Spektrum로 확장 이전
미디어텍 (Mediatek)	- 대만의 연 매출액 45억만 달러 규모 반도체 기업 . - 싱가포르에 2004년 설립되었으며 무선 통신기기, 가전제품, 광학 저장기기 등의 칩셋을 설계하여 생산.
코니카 미놀타 (Konica Minolta)	- 연 매출액 9,437억 5,900만엔(yen) 규모의 사무 기기, 렌즈 및 필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Konica사와 Minolta사가 2003년 지주 회사로 통합되었고, 사진기 산업을 폐지하며 디지털 SLR부문은 2006년 SONY에 매각했음. - 복사기, 팩시밀리와 같은 사무 기기, 산업용 잉크젯, 계측기, OLED조명, 광학제품, planetarium 등을 생산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 삼성제품 관련 서비스 및 고객관리, 싱가포르 법인 및 아시아 지역 본부가 진출해 있으며, 약 300명 고용
LG전자 (LG Electronics)	- 가전 및 전자 부품의 판매 법인과 서비스 관련 아시아 지역 본부가 진출해 있으며 약 200 명 고용하고 있음.
SK하이닉스 (SK Hynix)	- 아시아 지역 본부이며 반도체 마케팅 관리로 진출해 약 30명 고용

○ 전자제품 교역 현황

- (수출) '14년 싱가포르 전자제품의 총 수출액은 1,248억 달러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음. 주요 수출대상국은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등이 있음. 수출 1위국인 홍콩으로의 수출은 284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2.8%를 차지하며, 한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78억 달러로 6.3%를 차지
- (수입) 싱가포르 전자제품의 '14년 수입 규모는 920억 달러이고, 주요 수입 대상국은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이 있음. 그 중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이 232억 달러(25.2%)로 가장 크며, 중국 166억 달러(18.0%), 한국 104억 달러(11.3%) 순

〈 싱가포르 전자제품 주요 수출입국 현황 〉

(단위 : 천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수출액	비중	국가명	수입액	비중
	총계	124,816,551	-	-	92,033,511	-
1	홍콩	28,404,415	22.8	대만	23,230,390	25.2
2	중국	22,834,164	18.3	중국	16,600,502	18.0
3	말레이시아	11,346,196	9.1	말레이시아	12,053,972	13.1
4	대만	9,184,402	7.4	한국	10,441,947	11.3
5	한국	7,817,641	6.3	미국	5,818,584	6.3
6	미국	7,647,018	6.1	일본	4,800,751	5.2
7	일본	6,772,396	5.4	필리핀	3,769,926	4.1
8	인도네시아	5,220,041	4.2	독일	2,587,476	2.8
9	태국	4,735,889	3.8	인도네시아	2,225,663	2.4
10	베트남	3,616,367	2.9	태국	1,752,902	1.9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HS code 85 기준, 붉은 음영은 TPP참여국)

□ TPP 추진 관련 싱가포르 정부·전자업계 입장

- 이미 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상당 수준 FTA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관계로 정부차원에서 TPP에 대한 별도 대응계획 등은 언급된 바 없으며, 전자업계 또한 특이 반응이 없음.

□ 주요 기업 전략

- 싱가포르에는 제조역량 기반이 뛰어난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생산량이 위축되고 있으며, 대부분 생산에서 기술개발 위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분위기임.
 - 일부 예외적으로 반도체 웨이퍼생산 등의 생산시설 확장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음. (ex.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휴렛 팩커드 등)
- 정부의 정책방향도 작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국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제도⁵⁾를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어 싱가포르 진출기업들의 상기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 있음.

5) Land Productivity Grant : R&D, 경영 등 핵심기능은 싱가포르내 보존하고, 생산시설만 외국으로 이 전할 경우 소요비용 10~70%를 정부가 보전

〈 주요 전자 기업의 향후 싱가포르 사업 계획 〉

기업명	계획
휴렛 팩커드 (Hewlett-Packard)	- 21,000㎡의 디지털 프린팅 센터와 잉크 생산 시설 2015년 9월 오픈 예정. - 2015년에 컴퓨터와 프린트 산업, 기존 기업하드웨어와 서비스 영업부문으로 분리 될 예정으로, 싱가포르에도 이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icron Technology)	- 2015년, 반도체 제조 장비 확대 위해 40억 달러투자, Woodlands 지역에 255,000ft² 크기의 부지증축 및 사업 확대 결정 - 이번 투자를 통해 싱가포르에 2017년 완공까지 500개의 직업 창출 및 10억 싱가포르 달러의 부가가치를 더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파운드리 (Globalfoundries)	- 2012년에 이어 2014년에 다시 발표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IBM과 NXP등의 기업과 협력해 사업 및 제작가능 영역 확장 논의 중에 있음.
파나소닉 (Panasonic)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싱가포르 농산물 총 5% 공급 목표로 실내 농장 사업을 시작, 전자 부품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 진행 중임.
로데 슈바르츠 (Rohde and Schwarz)	- 2014년 중순, 향후 2~3년에 걸쳐 R&D 부문에 270만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 계획 발표
필립스 (Philips)	- 2016년 완공 목표로 Toa Payoh 지역에 필립스사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를 건설 중에 있으며, 기존의 필립스 캠퍼스는 R&D센터, 원격 의료와 관련된 Tele-Health 센터와 조명 체험 센터를 포함하여 재건 예정.
리얼텍 (Realtek)	- 싱가포르에 2013년 진출한 대만계 반도체 회사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 협력하여 2018년까지 5년간 1억 8000만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하여 지역본부 및 R&D 센터 설립을 진행하고 있음.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 2014년에는 Singapore's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ITE)에 새로운 교육 훈련 시설을 설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재육성 예정
SK 하이닉스 (SK Hynix)	- 싱가포르는 이미 관세가 없는 시장이고 환급정책이 잘 발달돼 있어 현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싱가포르 정부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 TPP와 관련 현 시점에서 싱가포르 비즈니스에 변화되는 사항 없음.
넥스웨이브 (NexWave)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정보 통신 및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사업을 진행하는 TeleChoice 그룹의 자회사로 2006년 설립 - 현재 네트워킹 기기와 부품들을 중국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생산 품질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고 관세감면도 받고 있기 때문에 TPP에 따른 영향 미미 전망

□ 우리 전자 기업의 TPP 활용 전략 및 유의사항

- 싱가포르 시장은 지금까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싱가포르는 이미 자유무역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이 TPP로 인해 느끼는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기 체결된 한국-싱가포르 FTA로 인해 대부분의 장벽이 사라진 상황임.
- 전자 산업과 관련된 현지 비관세 장벽으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성 사전 검사와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니 사전에 적절한 준비가 필요

* 소비자 보호(안전 요건)등록 제도(SAFETY Mark)

-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 제도로, 소비자의 신체 및 생명에 위험을 끼칠 수도 있는 제품들의 경우 강제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게 하고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이나 검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및 공공 장소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어댑터, LPG 시스템, 조리레인지, 전기다리미, 가스 요리도구, 헤어드라이어, 전자 레인지, 텔레비전, 비디오 플레이어 장치,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선풍기, 고주파장비, 온수기, 주전자, 냉장고, 밥솥, 에어컨,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이 포함된 전기, 전자, 가스 가전제품들 45개 제품군을 통제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통제 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광고, 전시 또는 판매를 희망하는 당사자(수입업자·소매업자·제조업자 등)는 안전검사 당국인 SPRING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 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은 후 SPRING Singapore에 제품을 등록하고 인증마크를 받아 부착해야만 싱가포르에서 해당 제품의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음.

6 중국

□ 전자산업 동향 및 특성

○ 전자산업 일반 현황⁶⁾

- '13년 중국의 소형가전제품시장의 소매판매 총액은 약 185억 달러
- '14년 중국의 휴대폰 생산규모는 176,444만대로 세계 총 생산량의 77.0%를 차지했으나 '13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15.2% 감소함. 중국의 스마트폰 소비량은 전 세계의 약1/3로 가장 큰 소비시장임
- 중국의 '13년 전자집적회로 시장규모는 1,001억 달러로 전 세계 칩 시장의 35%를 차지함.

○ 전자제품 교역 현황

- (수출) '14년 중국의 전자제품 총 수출액은 5,712억 달러이며,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홍콩,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있음. 홍콩으로의 수출은 1,579억 달러(27.7%)로 가장 크며, 미국으로의 수출은 920억 달러(16.1%) 한국으로의 수출은 370억 달러(6.5%)를 차지
- (수입) '14년 중국의 전자제품 총 수입액은 4,252억 달러이며,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 대만,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이 있음.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874억 달러(20.6%),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767억(18.0%)를 차지함.
-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공급이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중심의 수입에서 아세안 국가로 점차 이동하고 있으며, 현지생산 또한 중국의 임금상승 등의 경영 비용증가에 따라 생산라인의 아세안국가 이전이 점차 진행되고 있는 상황

6) 중국업종연구사이트(中国行业研究网), 중상산업연구원(AskCIData), 중국투자자문사이트(OCN), SEMI

〈중국 전자제품 주요 수출입국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수출액	비중	국가명	수입액	비중
	총계	571,186,011	-	-	425,185,573	-
1	홍콩	157,939,993	27.7	대만	87,492,759	20.6
2	미국	92,063,379	16.1	한국	76,723,385	18.0
3	한국	37,012,985	6.5	일본	40,673,987	9.6
4	일본	535,821,527	6.3	말레이시아	32,267,910	7.6
5	대만	18,245,439	3.2	미국	21,548,614	5.1
6	네덜란드	16,629,295	2.9	독일	13,224,856	3.1
7	독일	14,469,725	2.5	필리핀	9,424,692	2.2
8	베트남	12,062,949	2.1	싱가포르	8,995,806	2.1
9	싱가포르	11,497,119	2.0	베트남	8,296,010	2.0
10	인도	10,974,421	1.9	태국	7,339,103	1.7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HS code 85 기준, 붉은 음영은 TPP참여국)

○ 외투기업 진출 현황

- '13년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전자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은 7,088개로 중국 전자산업 기업수의 39%를 차지
- 생산액은 1조 153억 달러로 전체 전자산업 생산액의 67%를 차지하며 수출액은 6,902억 달러로 전체 전자산업의 88% 차지함.

□ TPP 추진 관련 중국 정부·전자업계 입장

○ (중국 리커창(李克強) 총리) 중국은 TPP를 향해 열려 있다('14.4.10)

- 리커창 총리는 보아오포럼(博鳌亚洲论坛)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TPP를 향해 열려 있다', 'TPP가 글로벌 무역을 발전시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무역 환경을 육성하는 건전한 역할을 한다면 중국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힘.

○ (중국 상무부 가오후청(高虎誠) 부장) 중국은 TPP 및 TTIP 면밀히 주시

- TPP 및 TTIP 체결이 세계 무역투자자유화 및 지역경제일체화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므로 중국은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

- 중국은 세계무역자유화 및 지역경제일체화에 도움이 되는 자유무역협정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TPP 및 TTIP 진행을 면밀히 주시하는 동시에 중국의 자유무역구 전략 추진을 가속화해 중국 대외무역 및 투자발전에 더 좋은 국제환경 및 체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외투기업 생산기지 이전 움직임, 그러나 큰 피해는 없을 것
 - 중국 진출 주요 외투기업(파나소닉, 소니, 제너럴일렉트릭, 콜먼 등)들이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를 이유로 U턴 혹은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는 TPP 미참여로 인한 피해는 아니며, 섬유와 달리 전자산업은 관세, 원산지 규정 관련 애로가 크지 않아 아직까지 TPP로 인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

7 태국

□ 전자산업 동향 및 특성

○ 전자산업 일반 현황

- 태국은 아세안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생산국가로, 생산량 기준 에어컨은 글로벌 2위, 냉장고는 4위를 차지하고 있음. 컴퓨터 부품인 HDD도 전세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생산국가임.
- 태국 전자제품 생산 공장은 800여개 이상이나, JVC, 소니(Sony), 니콘(Nikon), 파나소닉(Panasonic), 캐논(Canon) 등 일본계 기업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만[타통(Tatung), 에이서(Acer)], 한국[삼성, LG], 미국[시게이트(Seagate), 웨스턴디지털(Western Digital), 허니웰(Honeywell), 스펀션(Spansion)], 유럽[엘렉트로룩스(Electrolux), 필립스(Philips), 스티벨 엘트론(Stiebel Eltron), 슈나이더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BHS, ABB] 등 대다수가 외국계 기업임.
- 웨스턴디지털, 시게이트 등 미국계 기업은 HDD 및 연관품목 생산이 주요 업종이며, 한국 및 대만은 TV,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이 주요 품목임.
- 태국 전자산업은 외국계 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R&D 등 고부가가치 영역은 본사에서 이뤄지고 핵심 소재부품은 수입하여 태국에서 조립·가공 후 수출하는 구조임.

○ 전자제품 교역 현황

- (수출) '14년 태국의 전자제품 총 수출액은 305억 달러이며,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등이 있음. 그 중 미국으로의 수출이 52억 달러(16.8%)로 가장 크고, 일본 40억 달러(13.2%)를 차지하며, 한국으로의 수출은 약 9억(2.8%)를 차지
- (수입) '14년 태국의 전자제품 총 수입액은 381억 달러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으로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이 있음. 그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14억 달러(30.1%)로 가장 크고, 일본 68억 달러(17.9%)를 차지하며, 한

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16억(4.1%)를 차지

〈 태국 전자제품 주요 수출입국 현황 〉

(단위 : 천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수출액	비중	국가명	수입액	비중
	총계	30,599,422	-	-	38,066,086	-
1	미국	5,151,784	16.8	중국	11,439,503	30.1
2	일본	4,035,261	13.2	일본	6,806,117	17.9
3	홍콩	3,621,111	11.8	말레이시아	3,224,041	8.5
4	중국	2,598,472	8.5	대만	3,020,568	7.9
5	말레이시아	1,943,279	6.4	미국	2,160,316	5.7
6	싱가포르	1,542,828	5.0	싱가포르	2,084,707	5.5
7	독일	938,776	3.1	한국	1,567,714	4.1
8	네덜란드	874,435	2.9	베트남	1,565,378	4.1
9	대만	866,151	2.8	필리핀	952,873	2.5
10	한국	862,970	2.8	독일	902,865	2.4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HS code 85 기준, 붉은 음영은 TPP참여국)

□ TPP 추진 관련 태국 정부·전자업계 입장

○ 정부 및 유관기관 입장 및 대응 계획

- 태국의 TPP 참여 여부는 민감한 문제이며, 정부는 TPP 협상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음.
-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출경쟁력이 감소하여 멕시코, 캐나다, 미국 등 FTA 미체결국이나 경쟁 관계에 있는 TPP 참여국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Electrical and Electronics Institute) 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출에 있어서 타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러 혜택과 기회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몇몇 해외 기업들은 태국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이미 생산기지를 다른 국가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

□ 주요 기업 전략

< 샤프 (Sharp) >

- ▶ 일본의 전자기기 제조업체
- ▶ 라디오와 TV, 세계 최초의 트랜지스터 계산기를 발명하는 등 LCD 기술이 핵심 사업 분야로 자리 잡음..
- ▶ 2000년에 카메라폰을 일본 시장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했으며 '06년에는 인공지능 로봇도 개발하는 등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 지사를 운영하며 164개국에 제품을 수출 중.

- 에어필터와 냉장고, TV 모델 부문 등 일부 생산 공장을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일본으로 들여올 계획임을 밝힘.
- 이로 인해 해외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해외 생산 공장은 여전히 운영될 것이며, 운송비용과 생산비용 등의 주요 요소들을 확인할 계획
- (Sharp Thai사 CEO Mr. Masami Oue) 샤프(Sharp)의 주력 품목은 일본 내 2개의 생산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형 TV이며, '15년 초에 25개의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계획임을 밝힘.

< 웨스턴 디지털 (Western digital) >

- ▶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하드 디스크 생산업체
- ▶ '01년에 최초로 하드디스크에 8MB 캐시를 탑재했으며, '04년에는 최초의 내장형 SSD 하드드라이브를 발표하는 등 현재까지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 '11년에는 히타치 글로벌 스토리지 테크놀로지를 인수하여 시게이트를 2위 제조사로 만들.

- (Western digital 동남아시아 세일즈담당자) 태국에서는 더 큰 용량이 장착된 외부 장치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HDD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태국에서는 현재 디지털 경제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HDD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5년도의 트렌드는 이전의 500GB 보다 용량이 늘어난 1TB HDD라고 언급함.
- 태국은 여전히 HDD의 주요 생산기지이며, 웨스턴 디지털은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태국 생산 HDD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시게이트 (Seagate Technology) >

- ▶ 세계 시장 2위의 미국 하드 디스크 생산업체
- ▶ 세계 최대의 하드디스크 생산량으로 유명. '05년 경쟁업체인 맥스터를 인수했으며, 2011년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사업부를 인수함.

- 태국 Korat 지역에 새로운 빌딩을 건축할 계획임.
- 시게이트사는 '83년 태국에 두 개의 생산 공장을 설립한 이후로 30년 동안 전략적 요충지이자 동남아시아의 주요 생산기지로서 태국에 투자해왔으며, Korat에 빌딩을 새롭게 건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요를 충당할 계획임.
- 시게이트사의 태국 투자 이유는 노동력과 위치, 비용 체계임.

< LG전자 (LG Electronics Inc.) >

- ▶ 연매출 207억 달러 규모의 생활가전, 디지털 기기 제조기업임.
- ▶ TV, 모니터, 휴대 전화, 컴퓨터, 냉장고, 정수기, 세탁기, 전화기, 에어컨 등을 전문 생산
- ▶ '97년 태국으로 진출하였으며, 1,598명의 종업원 고용

- 태국의 노동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 텔레비전의 생산기지를 '15년 중순에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세탁기와 에어컨 등의 제조 공장을 운영할 것임을 밝힘.

□ 우리 전자 기업의 TPP 활용 전략

- 물류, 투자인센티브, 서플라이 체인 등 전자산업 투자환경이 우수한 만큼 '15년 출범 예정인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와 TPP를 활용하여 아세안 역내 비즈니스 분업 모델을 활용하는 전략 필요

III

시사점

□ 국별로 TPP 영향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며, 기업들은 효율성 확대 등 경영전략 측면에서 TPP를 활용하겠다는 입장

- (미국, 일본) 원가 절감, 지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기업 해외생산 U턴 증가 추세
 - 과거 미·일의 주요 전자 기업들은 임금이 저렴한 중국, 인도, 태국 등 신흥국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해 제품을 제작·수출 해왔음.
 - 최근 진출국 인건비 상승, 지적권 침해, 엔화 약세 등의 이유로 자국 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 일본으로 U턴하고 있는 추세임.
 - 지적권 보호,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규정 강화, 개인 정보 보호 기준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음.
- (베트남, 멕시코, 태국) 조립 및 가공 등 주요 생산국 - TPP 영향 大
 -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 선진국 주요 전자 기업들의 동남아 생산 기지로 전자부분 수출입 활발
 - TPP에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 멕시코의 정부와 전자업계는 TPP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정부는 TPP를 활용하여 투자 유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유치정책 마련에 적극적
 - TPP에 미참여하고 있는 태국 전자업계는 수출에 있어 TPP 참여국 대비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TPP 참여를 촉구하고 있음.
- (싱가포르, 중국) 조립 및 가공 등 주요 생산국 - TPP 영향 小
 -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 선진국 주요 전자 기업들의 주요 생산 기지이자 교역국으로 전자산업에 있어 중요한 국가임.
 - 세계적인 전자산업 인프라 국가인 싱가포르는, 이미 개방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TPP 참여로 인한 정부·전자업계의 특이 반응 없음.
 - 중국의 주요 외투기업들이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U턴 혹은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으나,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해 전자산업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

□ 전자산업 특장에 비춘 TPP

○ ITA협정 발효('97년)로 전자산업은 관세 관련 이슈 미미

-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 및 부품(203개)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IT품목 교역을 활성화하여 IT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기술협정(ITA)이 '97년 7월 발효
- 주요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TPP참여국 간 무세 또는 낮은 세율의 관세 적용 중
- (한국→멕시코·베트남) 수출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등 일부국, 일부 제품에 대한 현 관세는 높은 수준이나 TPP 발효에 따른 관세혜택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

○ 관세보다 원가절감, 투자 인센티브제도 활용을 통한 생산성, 효율성 증대가 주요 관심 사항임.

- 기존의 중국, 인도, 태국 등의 신흥국 중심 제조에서 생산성, 효율성 증대를 위한 생산기지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일 기업의 U턴) 신흥국의 높아지는 인건비, '거리 차'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고려했을 때 자국에서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정부의 제조업 위주 성장정책에 힘입어 U턴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 (베트남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 전자 기업 투자 활성화 및 베트남 전문인력 양성, 기술이전 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베트남 진출 기업 또한 이를 고려하여 생산기지 결정

□ TPP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 필요

○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경영전략에 반영하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글로벌 기업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성이 있음.

-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경영전략 변화는 TPP 체결이라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닌 개별 국가 간의 양자FTA, 인건비 상승, 기술력 발달 등 다양한 통상·시장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글로벌 기업들은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경영자원을 재배치하고 있으며, 우리기업 또한 글로벌 기업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 경영전략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함.

○ 수출시장 다변화 기회

- (주요 수출대상국 공략) 기존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중국, 홍콩 등으로의 수출 유지·확대를 위해 기업 브랜드 마케팅, 글로벌 기업으로의 부품납품 확대 등 새로운 전략 마련 필요
- (생산기지 내수시장 및 주변국 공략) 생산기지가 위치해 있는 신흥국들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브랜드 마케팅, 품목별 마케팅, 한류열풍 활용 등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필요

○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수출을 확대하여 글로벌공급망 참여 기회로 활용

- 베트남, 멕시코, 태국 등은 조립 및 가공의 주요 생산기지로 활용함과 동시에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으로의 소재부품 납품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로 활용이 필요
- 주요기업으로의 납품 이력이 있을 경우, 글로벌 기업으로의 납품이 한층 수월해지므로, 우리 대기업의 해당국 진출 시 중소기업 동반진출 모색
- 특히 미국, 일본 기업의 자국 U턴으로 마·일 내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품질의 소재부품 수요가 늘어날 것임.
- U턴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소재부품 공급 기회 확대 필요

작 성 자

◆ 뉴욕 무역관	임소현
◆ 달라스 무역관	이성수
◆ 멕시코시티 무역관	성준화 과장
◆ 도쿄 무역관	박은희 차장
◆ 하노이 무역관	정상현 과장
◆ 싱가포르 무역관	신정호
◆ 베이징 무역관	김령
◆ 광저우 무역관	이형직 과장
◆ 방콕 무역관	박현성 과장
◆ 통상지원총괄팀	오유진

Global Market Report 15-000

TPP 협상이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5년 4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www.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